

노사상생이 지역발전 원동력

2 춘투없는 봄

相生同行...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상생동행〉

올해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의 키워드가 '투쟁'에서 '상생'으로 바뀌고 있다. 올 초 노사화합을 선언한 기업수가 폭증하면서 이른바 노사의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올해 노사분규건수는 16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실업률도 4년14개월만에 불과해 60%나 줄어들었다.

노사화합을 선언한 기업들만 보면 확실히 노동계에 훈풍이 감지된다. 올해 4월까지 노사화합을 선언한 건수는 포스코·현대중공업·하이닉스반도체·동국제강 등 무려 132건에 달한다.

마치 노사화합 선언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동부는 노사화합선언을 하는 사업장이 없어서 별도 집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정도다.

한때 강성 노조의 상징이었던 코오롱 노사의 파격선언은 우리 노동

무파업 선언 코오롱...적자 살림서 흑자로 고용안정·투명경영 노사 평화시대 만들어

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노사화합을 넘어 '항구적인 무파업'을 함께 선언해버린 것이다.

코오롱 노조는 지난 2004년 64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곳이었다. 김홍열 위원장은 이 장기파업이 민주노총 탈퇴 결심을 굳힌 직접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오롱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된 후, 노조 사무실 현관에 걸려있던 '민주노총 화성연맹' 현판과 관련 강령을 떼어내고 노조원들이 함께 글씨를 새긴 '상생동행(相生同行)'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지난해 7월 김홍열씨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노조가 화해를 청하자 회사도 응답했다. 고용안정을 약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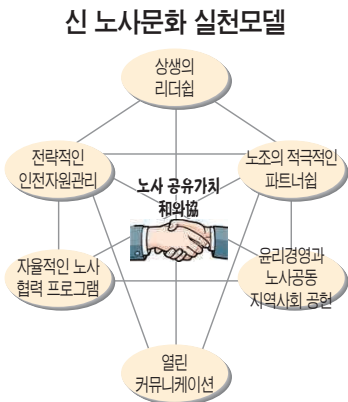
지난해 260억원의 적자를 기록

했던 회사도 노사화합과 때를 맞춰 올해 1·4분기 흑자로 돌아섰으며 노사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항구적인 무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하면 으레 '전투'를 발붙게 하는 파업으로 불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중국·베트남 등에 빼앗기고,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변화속도는 너무 더디다. 특히 한미FTA 협상 타결 등으로 개방화가 더 진전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도태가 불가피하고, 노동인력 등 자유로운 유입으로 후진적 노동시장은 타의에 의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총 관계자는 "노조



는 극단적 이기주의, 파업 만능주의에 매몰돼 목전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삶의 터전인 회사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등 노동운동의 향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도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금호타이어,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대기업들이 길건 파업의 고리가 될까봐, 노동인력 등 자유로운 유입으로 후진적 노동시장은 타의에 의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랑의 바자 아시아나항공이 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 공동 주관으로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사랑의 바자'를 열고 있다. (김호아시아나그룹 제공)

대부업체 연예인 CF 허위·과장 광고 조사

공정위 실태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연예인들을 동원한 대부업체들의 TV CF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왔으며 지난 달부터 TV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광고내용과 실제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광고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부업 관련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최근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유명 탤런트 등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1개월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의 광고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석유 고무노화방지제 설비 증설

수입차 국내시장 5% 점유

여수공장 내년까지 5만 규모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기록)이 자동차 타이어 원료인 노화방지제(6PPD)의 생산설비를 증설해 시장확대에 나선다. 6PPD는 금호석유화학 정밀화학부문의 고수익 주력제품으로, 현재 여수공장의 6PPD생산규모는 연 2만이다. 오는 6월 1차 증설완료 시 연 2만에서 3만대로, 또 2차 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6월 5만대로 늘

어난다. 2차 증설이 완료될 경우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춘 고무노화방지제(6PPD) 생산업체 중에서 세계 2위로 4단계 상승한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이 정밀화학부문에 있어 세계 1위 생산·판매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지난해 신규등록 4만7,648대

국내 승용차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이 지난해 사실상 5%를 기록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승용차는 총 95만2천322대이며, 이 가운데 수입차는 4만7천648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의 5.0%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4만5300대를 판매해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등록된 13개 수입차 업체의 신규 등록대수만을 집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 대수는 협회가 발표한 4만5300대 외에도 7천118대가 더 있다. "그레이트 임포터"(Gray Importer·소규모로

국내에 들여와 파는 비공식 외제차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 승용차와 외국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들여온 경우가 포함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해외로 수출됐던 국산차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경우도 일부 포함됐을 수 있다. 이같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은 수입차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천580대, 2005년 4천534대, 지난해 7천118대 등으로 매년 전체 수입차 가운데 12~15%를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1만4천144대, 이중 공식 수입업체를 통한 신규 등록은 1만2천351대, 공식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은 신규 등록은 전체의 12.7%에 달하는 1천793대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약업계 불공정행위 강력 경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에 대해 "이제는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업체들이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제재수위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약업계 대표이사들과 간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주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CP 선포식에 이어 행



한 강연에서 "사업자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의 규제 틀을 더 이상 산업내의 독과점 이익을 공공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납품과정에서의 부당한 고액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이같은 경쟁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0억 이상 입찰 참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나 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은 오는 7월 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낙찰 기회가 없어진다./이종태기자 jilee@

덤프트럭용 자동덮개

대리점 모집 안내

당사는 덤프트럭용 자동덮개 전문메이커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양이라는 브랜드로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번 다음 지역의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개설예정지역

- 광주광역시 지역
- 전남 광양, 순천시 지역
- 제주도 지역

자격요건

- 덤프,특장차 정비 유관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운전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
- 덤프 자동덮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
- 부동산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분

특 전

-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보장
- 주요 직거래처 출고차 덮개 장착대형 보장
- 스카니아코리아, 볼보트럭, 타타대우상용차

(주)SY테크(수양) 문의: (055)385-2364/011-879-1472 Fax.(055)386-8517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499-4 http://21sooyang.com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파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펌파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한온가습기 공기정정기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15평~160평형) 벽걸이형 에어컨 (6.8, 10평형)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펌파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 080-701-7117